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라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장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거짓 없는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벧전 1:22)

충현의 5대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일꾼으로 세워지며, 십자가를 깨달은 천국일꾼으로 선 선교와 전도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막 12:31).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갈 5:13)을 담아 '말 뿐인 사랑'이 아닌 '실제적인 사랑 나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벧전 3:8).

교회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두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향해 형식적인 구제가 아닌, 실제적인 현물(쌀과 부식)로 돕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매년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이제인 발생 즉시 현상으로 달라가 그들과 함께하며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구체적인(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인 의료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경과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국민자들을 돕고 있으며 또한 일부 국민자에 한해서 현금을 통한 아낌없는 지원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가장 적절한 섬김의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2005년 4월 통계) 정기구제, 특별구제, 일반구제, 대외특별구제를 하는데 이미 580여건 이상이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웃을 섬기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요 3:16)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항상 구제와 더불어 십자가의 복음(고전 1:23)을 전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운 충현복지관도 현재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도를 잊지 마시고 성도들의 사랑이런 기도를 부각드립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새 계명입니다(막 12:30,31). 이 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모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요일 3:10).

2,500명을 향한 선택!

지금 신청하세요

다음주일(6월5일) 제 7차 CMTC 훈련

선교사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하며, 선교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롬15:27).

지금 주님은 우리를 평신도 단기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총의 부르심에 '빛진 것' (롬 8:12)로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행 1:8) 나가야겠습니다. 교회는 이를 돕기 위해서 매월 CMTC훈련을 개설하여 철저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CMTC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 주일부터 진행되는 훈련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29일)도 변함없이 오후 4시 갈릴리움에서는 선교기도회가 계속됩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이 선교를 위해 무릎을 꿇을 때이며, 선교자를 향해 나갈 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성령 속의 예수 그리스도(7)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성막에 있던 모든 가구들은 그리스도 자신과 사역을 예표한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던 목적은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출 25:8,9). 여기에서 새 가지의 본래된 목적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라기에 만나는 인간들의 죄악에 관하여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셋째는 그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보시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막은 출애굽기 26장에 그 식량이 제시되었는데 그 개략은 이러하다. 성막이 서는 주위에는 율타리가 쳐져 있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다. 성막 앞의 뜰을 성막뜰이라고 불렀고 거기에서 제물이 준비되고 드려졌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칸막이를 한 칸짜리 방이 있었는데 둘로 나누어져 있다. 성막 뜰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방이 성소인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런데 그 안에 더 은밀한 방이 하나 있는데 성소 다음에 있는 지성소다. 거기에는 60kg이 넘는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었고 그 속죄소를 열면 법궤가 있다.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좌정하시는 보좌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으로 아무도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 뜰의 동쪽 끝에 있는 문로 들어가면서 세상을 향하는 문을 만났다. 앞에는 죄를 위해 반재를 드린 반제단이 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위한 반제가 영원히 드러졌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히 10:2). 성막에서 반제단을 지나 성소 속으로 걸어가면, 거기에는 물두멍이 놓여 있다. 물두멍은 청결을 위한 기구였다. 성소는 구원받은 이후로 자신의 삶에서 고백되어야 할 죄는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죄를 지적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성경을 읽을 때 깨끗함을 받아야 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성막의 물두멍을 지나서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간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그의 왼편에서 성막을 비추고 있는 손금 등잔을 볼 수 있다. 이 등잔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성령을 상징한다(골 1:14). 성소 안에서는 손금 등잔은 뒷편에 놓여 있던 진설방상을 환하게 비춘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요 6:35,4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시라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섭취할 수 있다.

성소 안에서는 또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놓인 향단이 있다. 향단은 기도의 장소이고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장소이다. 깨끗케 하는 물두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향단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직무나 기도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있어야 함을 되새기게 한다.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휘장은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백성들 가운데 돌아만 바 된 대제사장, 오직 일 년에 한 번만 나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제사장이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뵈옵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의 각 부위를 헹가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담막을 얻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둘로 찢으셨기 때문이다(히 10:19,20).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 다른 대가를 완전히 충족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것이다.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막을 떠날 때를 상상해 보자. 진설방상을 지날 때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손금 등잔을 지나면서는 하나님의 영광 각 개인에게 밝히 알게 하시는 성령을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물두멍 앞에서 그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반제단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죽어선 존재임을 되새길 수 있다(갈2:20). 그런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된다.

(정진로 목사)

MINISTRY OF THE HOLY SPIRIT

(13)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14) He shall glorify Me; for He shall take of Mine, and shall disclose [it] to you. (15) All things that the Father has are Mine; therefore I said, that He takes of Mine, and will disclose [it] to you. (John 16:13-15)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is a wondrous and amazing experience. Since God is three persons, Father, Son, and Holy Spirit, He is one person of the Trinity. He is a promised gift from the Lord God to anyone who repents and baptizes themselv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see Acts 2:38-39). Peter had first handed knowledge of God's worldwide gift to believers. He not only received it, but also witnessed its delivery to Jews and Gentiles (see Acts 11:17). The presence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 hearts of believers is a very important gift from God. Jesus specifically told Nicodemus,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Jn. 3:5). He also told the woman at the well,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Jn. 4:24). Believers greatly need the Holy Spirit.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He unites us with God,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our access in one Spirit to the Father" (Eph. 2:18). Jesus lives in our hearts because of the Holy Spirit, "By this we know that we abide in Him and He in us,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1 Jn. 4:13). We cannot be God's child without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e cannot worship, understand, or even share the gospel without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When the Holy Spirit came down from heaven to enter into your heart, which way did you receive Him?

Did you receive Him as a guest? Guests cannot control your house; they are visitors. If the Holy Spirit is your guest, then He is not your master. He can only do what you allow Him to do. Just as when you have guests in your home or are a guest in someone else's home, there are certain rules of conduct. As a guest, the Holy Spirit will always be a gentleman, never abrupt or abusive. He will accept your nice treatment and tolerate your bad behavior. When you insult or ignore Him because of your anger, jealousy, or own desires, He will remain quiet. A contradictory or confused heart hurts Him deeply,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Let all bitterness and wrath and anger and clamor and slander be put away from you, along with all malice" (Eph. 4:30-31). The Bible says, "Do not quench the Spirit" (1 Thes. 5:19). Do you overpower the Holy Spirit, so that He is unable to minister to you? How much comfort and control do you really allow your guest?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as a guide? John 16:8-11 says, "And He, when He comes,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concerning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and concerning righteousness, because I go to

the Father and you no longer see Me; and concerning judgment,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has been judged." The Holy Spirit wants to lead and guide you,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Jn. 16:13). What a blessing it is for those who die to themselves in order to let the Holy Spirit control their lives,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in that very hour what you ought to say" (Lk. 12:12). The Bible says, "For all who are being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Rm. 8:14). Are you listening to the Holy Spirit? Matthew 6:24 reminds us that,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Who guides your life?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as a gift? When someone really cares about you, he or she wants to give you a gift. They want to express their love in a way that you can actually experience it. God's love for you is great, as shown by His gift of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also gives gifts. He gave the 120 people in Mark's upper room the gift to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1 Corinthians 12:8-11 says, "For to one is given the word of wisdom through the Spirit, and to another the word of knowledge according to the same Spirit; to another faith by the same Spirit, and to another gifts of healing by the one Spirit, and to another the effecting of miracles, and to another prophecy, and to another the distinguishing of spirits, to another various kinds of tongues, and to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What is your gift? If you do not know, you need to find out. You need to start caring! If you know, you need to use and appreciate it.

My dear friend, what kind of relationship do you have with the Holy Spirit? Is He just a guest in your heart? Is He truly your guide? Are you sincerely grateful for the wonderful gift God has given you? Matthew 5:6 says,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The Holy Spirit wants to minister to you; He wants to give you everything you need to live this short earthly life and eternal heavenly life. "Until now you have asked for no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so that your joy may be made full" (Jn. 16:24). Even though you have made mistakes, pray in the name of Jesus, so that you can experience complete joy. Please wake-up and let the Holy Spirit minister to you. Stop controlling things, and let Him lead you. Let Him be the real gift God intended just for you. 

성령의 사역

⁽¹³⁾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¹⁴⁾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¹⁵⁾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 16:13-15)



김성관 목사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며, 성령은 그 중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행 2:38-39).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모든 신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유대인이자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행 11:17). 신자들의 가슴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또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게 나야 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8).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느니라"(요일 4:13). 우리는 성령의 온충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복음을 이해하거나 함께 나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성령께서 하늘로서 내려와 마음 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우리의 인도자, 성령

우리는 성령을 손으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손님은 주인의 집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은 단지 잠깐 왔다가는 방문객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손님이러면 그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다른 집에 방문할 때 행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는 것처럼, 만약 성령께서 손님이라면 그는 언제나 점잖게 행동해야 하고 절대로 통령스럽거나 거친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절할 대접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분노나 질투, 또는 욕심 때문에 그분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더라도 성령은 조용히 침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순되고 혼란스런 마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행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엡 4:30-31). 성령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 혹시 자신이 성령의 사역을 억누르고 있지 않음을 살펴보십시오.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며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인도자로 맞이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리

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께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대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눅 12:12). 성령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 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과연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성령 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선물, 성령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정말로 우리를 좋아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선물을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자세히 말해줍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아직 모르고 있다면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있다면 감사하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성령께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손님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인도자이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은 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하리라"(요 16:24).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위로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성령께서 통치하시도록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려던 모든 것을 멈추고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

장로 칼럼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5교구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3)



안선현 (5교구장)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라는 말씀을 표어로 1)책인과 충성 2)개인의 영적성장 3)교구 활성화 4)영혼구원의 네 기둥을 세우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 교구가 변화되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교구는 강남구(개포, 포이, 일원, 수서동), 서초구(양재, 우면동)를 중심으로 293세대(734명)가 8개의 지역과 28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95명의 일꾼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소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막 14:3)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알고도 버리지 못한 죄악의 모습들을 깨뜨려서 십자가 밑에 던져 버리고, 대신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장 좋은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쳐 드리는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구 목표를 기도, 말씀, 교제, 전도와 선교, 이웃사랑으로 구체화시켰고 이를 위해서 교구 식구들이 온 힘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예배와 모임(교구, 지역, 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서는 200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일꾼 연속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열심히 연속기도에 참여한 결과, 주의 일꾼으로서의 소명감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불어 기도의 능력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꾼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의 불씨가 되어 매마른 영혼 가운데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매일 위임 목사

님의 설교 본문 말씀을 고향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개인의 영성 훈련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에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교구 식구 이면서도 그 동안 한번도 교구 모임과 금요집회에 참여하지 않아 서먹서먹한 교구 식구들과 성도들의 가족 중 친지 않는 가족과 오랜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해 온 태산자들을 위한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와 전도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중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미 1개 팀이 은혜 중에 선교를 다녀왔고 앞으로 파송될 8개 팀이 말씀과 기도와 언어훈련을 받으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주변전도와 개인 전도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력투구하는 교구일꾼을 보며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의 어려운 교구 식구들을 도우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별로 성경일독과 성경암송, 성경서, 도고와 짝 기도를 통해 영성을 쌓고 있어, 장기 결석자 가정 상담, 경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교구 활성화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인의 모습으로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눅 7:38) 5교구 모든 식구들이 각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고(요 12:3)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딤후 2:21)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청년부 선교팀에서 선교훈련 중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들을
선교를 떠나기 전 나누고자 합니다.
6월 2일 ~ 6월 9일까지
7박 8일 선교기간 동안
이들이 성경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 사도행전 3장 6-8절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일어나 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선교에 영혼에게 온과 금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매우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명령이며 사명이기에 감사할 뿐이다. (조종민 안수집사)

♡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행 2:28). 앞에 계신 주를 뵈길 원하며, 귀한 이런 양을 만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김정미)

♡ 사도행전 12:5-12를 보면 성경님의 역사하시는 여러사람의 충고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무릎꿇겠습니다. (최정대)

♡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고 예정하신 그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았나이다...”(행 4:28-29).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종들을 사용하여 대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홍현주)

♡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선교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최희운)

♡ 죽음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소중한 스데반의 담대함이 단기간의 교를 앞둔 나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묻어나듯, 저도 선교사의 사명감을 지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선미)

♡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야만인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 정말로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선교도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최희숙)

♡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지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선교지에 가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팀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영주)

♡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저기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행 8:26).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기쁨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민수정)

♡ “...내가 너를 구원하여 지파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행 26:17-18). 예수를 믿었던 바나바가 전한 바나바의 영혼은 빛으로 구원받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울 만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인혜)

하나님께 보고할 선교의 기쁨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면서 엄마를 보내는 6살 된 아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나의 마음은 참으로 작았습시다. 내게 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들어왔으니, 나는 지금 자녀를 키우는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꼭 이렇게 선교를 가야 하는가 생각하며 선교를 떠났습시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 그 곳에서 우리를 반기는 어린 아이들을 보는 순간 겁에 두곤 온 아이들로 인한 나의 갈등과 근심이 나의 이기심만을 금세 깨달았습시다. 나의 아이들로 인해 생긴 근심과 걱정으로 뺀 건 나의 마음을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로 인하여 행복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습시다.

사역지의 어린이들은 정말 참 순수하고 예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비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열두 세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벌써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전례로 이런 상황을 두고 아이들이 굴러다니면서 큰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끝까지 읽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전도지를 읽고 기도하라고 하였습시다.

나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서 다시 그들이 또 다른 믿지 않는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선교에 대하여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선교의 기쁨은 당신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신성민 (집사, 13교구)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번 선교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열린 마음'이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간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후속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다시 한번 느꼈다. 대학교에서 만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친구는 변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변론하기보다는 정말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리라는 소망을 품고 한국에 돌아왔다. 이곳에서도 기도도 그들과 만나야겠다.

"그러면 무엇이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나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 1:18).

그들이 웃는 내도 웃었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는 나도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다.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들이 물건을 빼앗는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했지만 점점 불쌍한 마음이 앞서게 되었고, 그 물건들로 인해서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던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다.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길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제일 감사하다. 앞으로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것이다.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후승민 (대학부)

성령의 은혜

태양이 직열하는 선교지에 도착해서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너무 강한 햇볕과 습도가 살인적이었다. 복음을 전하기가 마음에 부담스러워 뒤 기도하며 완송했다. 그들의 눈동자는 맑고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때묻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려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입술에서는 "아멘" 고백의 말과 어른들의 "평안(에)" 하는 영접의 말을 들을 때 감격이 넘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정말 사마리아 땅 말이 여기구나. 세상이 태어나서 이렇게 암흑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죄악의 세력이 이 곳을 누르고 있구나". 이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목이 쉬도록 찬양과 율동과 전도 메시지를 외치며 영접기도까지 하였다. 땀이 머리에서부터 밑 팔까지 물을 붓는 것 같았다. 성령께서 생숨은 기쁨과 즐거움과 힘을 주셔서 전혀 지치지 않는 것 같았다. 끝까지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모든 팀원이 하나되어 사역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린다. 이후에도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함을 강하게 느꼈다. "내가 전설로 전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 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5:24)

신종식 (집사, 15교구)

한 영혼을 위한 증인들의 고백

은총을 입은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금요집회 때에 고백했던 선교 보고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 *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 *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으로 끝까지 사역하였습니다.
- *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 *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 *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어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 *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음의 덩어리가 되어야함을 깨달았습니다.
- *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교의 행진이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 *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수록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 *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해야 할 기도의 순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반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30(월) - 6월 7(화)	2교구부1)	송현하	6월 2(일) - 6월 10(일)	7교구 1지역	송두심
5월 30(월) - 6월 7(화)	13교구 5지역	김재현	6월 2(일) - 6월 9(일)	청년부2)	조종민
5월 30(월) - 6월 8(수)	10교구 1지역	남은호	6월 3(일) - 6월 11(일)	5교구 8지역	양기수
6월 1(월) - 6월 10(일)	2교구 6지역	김문섭			

한재 시역 지역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23(일) - 5월 31(월)	11교구 3지역	정영주	5월 24(월) - 5월 31(월)	외선부1	김한배
5월 23(일) - 6월 2(일)	3교구 1지역	최하나	5월 25(수) - 6월 3(일)	2교구 7지역	정용희
5월 23(일) - 6월 2(일)	14교구 5지역	김영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17(화) - 5월 26(일)	5교구 7지역	전종필	5월 17(화) - 5월 26(일)	10교구 2지역	정영환
5월 17(화) - 5월 26(일)	9교구 5지역	강화경			

중등 3부에 다니고 있는 **변혜연** 학생을 만났습니다.
혜연이는 매주 금요일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
이번 여름에 단기선교를 처음 가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혜연이의 소수한(18:3) 다짐을 들어봅니다.



중3인데 매주 금요일회를 드리는 것이 부담되지 않아요?
처음엔 엄마가 집회를 데리고 해서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서 나오게 됐요. 금요일회를 통해서 어려운 성경말씀을 목사님께서 좀더 쉽게 전해 주셔서 좋아요.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리고 모르는 찬양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이번 여름에 선교를 처음 간다면서요?
처음엔 여러가지 두려운 생각이 많아서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회때마다 선교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울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이유가 궁금했었어요. 친구들은 중3인데 공부할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지만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과 친구를 질투하기도 하고 동생을 미워하기도 하는 죄를 짓지만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늘 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어서 정말 좋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힘들 때 세상적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아빠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편지집)

또 다른 열매 - 전도 릴레이

나는 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교회 가지!" 하며 교회로 데리고 온다.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이 없었다. 친구들이 부담을 가지 나랑 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며 나와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만 "우리...교회 가지 않을래?"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나는 4명의 친구를 전도했다. 한 명의 친구를 빼놓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수화를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집이 멀어서인지 모두 다른 교회로 갔다. 그 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다. 한 친구는 가족을 모두 교회로 인도했고, 한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전도했다. 집이 무척 멀던 친구는 무섭거나 두려운 생각이 없어지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 전도까지 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모두 택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난 그 친구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나를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 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싫어하는 친구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결실이 많을지, 적을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친구 한 명을 전도해도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 또 다른 친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도를 하려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망설이고 조심하던 내 생각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시고 열매 또한 허락하고 계시는 전도 릴레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러 명의 친구가 또 다른 예수님의 열매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또 다시 두려운 생각이 들면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다. 우리가 전하고자 할 때 주님의 권능이 임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감사함으로 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오예지 (중등1부)

순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4월 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일터에서 순군이를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별로 없고 수줍음이 많았던 순군이. 처음 만난 날 나는 순군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순군이에게 우리 즐겁게 일하자고 권면하며 같이 열심히 전단지를 배포했다. 그 와중에도 순군이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를 기다리면서 또 기도했다.

그런데 중 하나님의 은혜로 순군이에게 자연스럽게 내 삶을 전했고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뒤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순군이와 계속 연락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들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가족부 집회에 맞춰서 순군이가 대학부에 처음 나왔다. 축복 받으며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순군이가 참 기뻐하는 것이 느껴졌다. 축복받고 기도하는 일로 내 마음 또한 부요해진 하루였다.

하나님이 순군이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뻐하고 내가 순군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정재은 (대학부)

하나님의 종 (말 1:1-3)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호칭을 위해서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모으며 살아간다. 세상에서의 호칭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호칭을 위해서 직위와 직급, 성공자를 꿈꾸고 있다. 나는 어떠한 호칭을 듣고 싶었을까? 그리고 그 호칭을 듣고자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다. 그는 왜 자신을 그렇게 불렀을까? 그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지식의 호칭을 모두 들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가진 재물, 권력, 명예의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표현하였다. 세상의 그 누구도 종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사도라고 말한다. 그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갈 2:20).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호칭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기에 합당했다? 아니면 오히려 그 자랑스런 호칭이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랑이 아닌 종됨의 부끄러움이 되진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많은 초점이 있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달았다. 바울은 삶 전체가 전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없는 자기 부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이 바로 복을 전파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런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겠다.



인경호 (청년1부)

교회 탐방 65 5교구 전도팀

오늘은 꼭 한 분을!

5교구 전도화원들이 일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전도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이다. 전도와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적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고에는 영적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 격려를 체험한 5교구 전도화원들과 교백을 함께 들어 보자.

교회주변 전도 방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죽도 전도와 직접 전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 전도와 발판을 마련하려 합니다. 전도 시책에 가서 우선 기도하고 여리고 작전처럼 많은 지역을 서너 바퀴 돌면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 갑니다. (전선준 권사, 애스더 전도화원)

전도를 나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내가 먼저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지요. 전도에 우연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담대함과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서옥선 집사, 루디아 전도화원)

전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선준 권사)

수요일의 주변 전도를 위해 화요일은 반드시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다음 날의 전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미려한 방법으로 전도하러 합니다. (전세준 집사, 루디아 전도화원)

오늘은 꼭 만 번이라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결심은 하지요. 진심은 통하나서 진실한 믿음을 오로 합니다. (선순준 권사, 안나 전도화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간구하면서 갑니다. (이경희 집사, 매리야 전도화원)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점은?

전도 구역의 번식을 나누어 회원들에게 책임자로 할당하여 지속적인 전도를 하게 합니다. (전선준 권사)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테면 배가 고파서 점심 먹으려 갈 때보다는 점심을 먹고 기본 조를 돌아올 때 다가가는 것이 좋겠지요 (선순준 권사)

저는 직장인들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웃으면서 가서 전도를 하니 효과적이었어요. 미소 작업이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서옥선 집사)



자신이 없을 때, 둘이 짝을 이루어 하나가 훨씬 영적 임이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전세준 집사)

전도를 통해 깨달은 점은?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곽재자 집사, 애스더 전도화원)

내 신앙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서옥선 집사)

전도가 나의 영적 성숙의 지름길입니다. (이경희 집사)

전도의 열매는?

최선을 다해 기도한 후에 나갔을 때, 문을 열어 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었습니다. (서옥선 집사)

화요일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나갔을 때, 이름을 적어 왔습니다. (전세준 집사)

아버지의 영안이 되어 일고를 만나는 기쁨으로 나갔을 때는 어떤 결과라도 아버지께서 맡아 주십니다. (곽재자 집사)

소개하고 싶은 경험은?

처음에 나가 목을 먹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교구 영성훈련 때,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믿을 얻어서 전도합니다. (이경희 집사)

전도하는 저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다고 옥박지던 분께 더욱 믿고 있게 전도하여 결국에는 그분으로부터 고압대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옥선 집사)

전도를 통해 얻게 된 영적 은혜는?

성령 충만한 마음을 얻었기에 늘 기쁩니다. (선순준 권사)

요율적인 전도를 위해 영적 권위가 넘치는 화살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전선준 권사, 애스더 전도화원)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곽재자 집사)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목숨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었습니다. (서옥선 집사)

전도를 통해 자기부인을 하여 제 신안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경희 집사)

전도를 위해 생을 바치겠다는 이 사람들을 생애가 감동치 못 어려라.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176장 영화로신 주 성령

이 찬송은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를 담은 찬송으로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 앤드류 리드 (Andrew Reed, 1787~1822) 박사가 작사한 찬송이다. 작곡은 미국의 파나시스트, 작곡가 루이스 모리우 골라드(Louis Moreau Gottschalk, 1829~1869)가 작곡했다.

가사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노래한다.

1절은 영화롭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영광의 빛을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그늘을 몰아내고 그 어둠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찬양한다. 성령의 사역은 죄를 생략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 성령의 새롭고 하심을 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2절은 전능하신 성령께서 의인으로 물든 우리 영혼과 몸을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다. 성령은 권능과 능력의 영으로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

3절은 성령은 평화의 영이시다. 분열과 슬픔, 인간의 괴물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놀라운 화평의 성령을 찬양한다.

4절은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다. 거룩하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우상의 자리 즉 망령된 자들을 내어 던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성령 앞에 나설 수 있다. 거룩하신 성령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시키는 죄의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위원회)

새 가 록 : 축 : 함 : 영 : 합 : 나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75	지르시혜	19	외선부	김유순(13)	1500	김현정	19	청년1부	김재국(7)	1525	선영익	2	청년1부	안준모(4)
1476	김근술	8	장년2부		1501	권리리	19	고등부	오보라재(13)	1526	조정환	7	장년1부	조정환(1)
1477	신도희	9	장년2부	황국규(4)	1502	이도건	19	중등2부	한홍진(17)	1527	유정훈	9	고등부	이정현(13)
1478	김준하	1	장년1부	홍종국(4)	1503	오정연	9	청년2부	정국영(10)	1528	이승훈	16	청년1부	차정환(16)
1479	최승진	11	장년2부	조보재(11)	1504	김진호	19	중등2부	손은진(18)	1529	김다혜	19	중등2부	오다현(18)
1480	최영심	11	장년3부	박종현(11)	1505	김영희	11	장년3부	한승조(17)	1530	박현수	19	청년1부	최지재(6)
1481	최희준	7	장년1부	김경환(10)	1506	김재갑	10	장년3부	권종환(10)	1531	홍승훈	19	청년1부	김종민(1)
1482	고영미	9	장년1부	박봉민(5)	1507	전찬희	2	장년1부	안근재(4)	1532	박재민	19	청년1부	김지희(6)
1483	김한철	2	장년1부	구정현(4)	1508	인연하	19	청년1부	한승진(4)	1533	박영재	5	장년2부	김영은(8)
1484	이흥식	2	장년2부	윤호남(2)	1509	심상주	12	장년1부	심영숙(4)	1534	박승태	19	대학부	백정숙(12)
1485	최희연	6	장년1부	채동석(5)	1510	박지현	6	장년1부	박성환(10)	1535	김사나	19	대학부	추복희(1)
1486	송원식	8	장년1부	정성화(7)	1511	정찬수	2	장년2부	송영삼(4)	1536	김정민	19	대학부	김슬미(11)
1487	김영희	8	장년1부	변성숙(7)	1512	홍준희	19	청년1부	이수재(11)	1537	윤승록	19	대학부	문서근(4)
1488	김소연	19	중등2부	이희정(11)	1513	독신	19	외선부	정영선(12)	1538	루인두	19	외선부	표정환(7)
1489	이동희	10	장년3부	이현희(4)	1514	여다	19	외선부	정영선(16)	1539	강경민	19	외선부	성영선(11)
1490	장유리	4	청년2부		1515	황투루	9	장년1부	이옥재(12)	1540	바르셀로니	19	외선부	강창석(12)
1491	윤진주	9	청년1부		1516	서현숙	9	장년1부	남성환(7)	1541	최태민	19	외선부	변윤교(1)
1492	양성순	16	장년1부	이현희(8)	1517	정재현	19	청년1부	한정희(8)	1542	신지나	19	외선부	송윤숙(13)
1493	김정순	7	소년부	한계숙(7)	1518	정찬주	14	장년1부	신상석(4)	1543	배미	19	외선부	김다혜(19)
1494	통가	19	외선부	전진희(4)	1519	이세훈	19	청년1부	최윤석(14)	1544	이영희	19	청년1부	이규숙(3)
1495	이준호	19	외선부	전진숙(4)	1520	김준경	10	장년1부	박영선(5)	1545	노는	19	외선부	조성환(10)
1496	권혜연	5	장년1부	심순준(5)	1521	박근기	9	청년2부	조영진(14)	1546	김혜선	19	청년1부	김혜영(8)
1497	홍필성	6	장년1부	이현숙(180)	1522	김영문	19	청년1부	박영환(8)	1547	김지섭	19	청년1부	김혜영(8)
1498	최희민	19	청년1부	장진영(7)	1523	송영진	14	청년2부	정영환(12)					
1499	노리야	19	외선부	김희철(4)	1524	정현진	19	대학부	권관희(8)					

※ 중교회와 한 가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록 등록표도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시: 29일(오늘) 15:00
장소: 감리교회
2. 신자 12월의 월례회
일시: 6월1일(수) 수요부 예배 후
장소: 칼릴리움

별세

1. 윤재원 타교전사 (박옥현 안수집사의 친제, 정연희 집사의 시모) 5교구 일원2구역, 20일 별세, 23일 장례
2. 이현주 씨 (이복순 집사의 부친, 전병우 집사의 장인) 5교구 목원구역/23일 별세, 25일 장례
3. 이이순 성도(노관옥 집사의 모친, 박화자 집사의 시모) 18교구 죽전구역/23일 별세, 25일 장례

직원모집

1. 모로남 권비직
2. 모로남 약간명
3. 자 격 세례교인(만 55세 이하)
4. 재출사류 자립이력자
주인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타교인)
5. 사역취급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552-8200 (#403)

4. 한명수 성도(김경재 성도의 남편, 한상재 집사의 부친, 황정희 권사의 사부) 2교구 이화구역/24일 별세, 26일 장례
5. 임근단 타교성도(김정복 집사의 모친) 15교구 신원5구역/24일 별세, 26일 장례
6. 최임상 집사(심명희 은퇴권사의 남편, 최수애 집사, 최영철 집사의 부친) 3교구 대림2구역/25일 별세, 27일 장례

결혼

1. 김대근 군(김진성 집사, 백순자 권사의 아들, 4교구)와 차은옥 여 (부목교회 차장남 목사, 김수옥 사모의 딸)/31일(화) 12:30 칼릴리움
2. 김남현 군(박순자 집사의 아들, 14교구)과 강기갑 양(한영교회 강대한 집사, 이양식 집사의 딸, 천인도타교신자)/6월 2일(목) 13:00 칼릴리움

◆청년2부 여름수련회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중인
일시: 6월 6일(월)
시간: 오전 8:50 부터
장소: 제2교육관 4층

◆단기교신양육 훈련

일시: 6월 1일(수)까지 매주 수요2부 예배후
장소: 본당 112호
(*7월 팀장훈련은 없습니다. 미수료자는 이번 차수에 전원 수반됩니다.)

◆안수집사/부부전양양습

기간: 29일(오늘)부터 6월19일(주일)까지
시간: 16:00-16:40 장소: 교육관 301호

6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I	II	III	IV	V			I	II
6	5	김영은	최지윤	김광남	김종구	노영한	김규석	김봉재	진홍용	
	12	황영일	안종옥	최무길	김환기	이형수	신광철	박대남	박영숙	
	19	신상수	원용철	김영달	김영수	배준식	김재식	김현미	백옥순	
	26	엄필성	이정우	안석원	강철형	이종식	신상수	김연옥	양은옥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5/30(월)	5/31(화)	6/1(수)	6/2(목)	6/3(금)	6/4(토)	6/5(주일)
설교자/기도자	정종신/박철구	양재용/지정복	조규관/신종식	최성광/김종성	이재영/백옥현	이경준/김경자	이정훈/이수경

예배담당 안내 (6/1-6/5)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6/1	수요 I	황 광자용 노재환 (호산나 찬양대)	위찬광 백희숙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사 55:6-9) 김동욱 목사
6/1	수요 II	◎ 황광현 십자가예 (실로암 찬양대)	정성영 장남희	예수 그리스도의 길 (마 4:1-11) 이경준 목사
6/3	금요일회	비교령원 이예숙/소르노 이은주/브리덴 마영중/장단나 찬양대	김영준	찬곡 복시 I (마 4:23) 양재용 목사
6/5	주일 I	(예배 전 집회)	윤수일 김영은	성령의 사역 (요 16:13-15) 이재영 목사
6/5	주일 II	내가 의지하는 예수와/마리아를 원유전(아미아누스 오케스트라)	조규호 최지윤	성령의 사역 (요 16:13-15) 김동욱 목사
6/5	주일 III	◎ 놀라운 구세주와/할렐루야 찬양단(지도: 이수진)	고광환 김광남	성령의 사역 (요 16:13-15) 류병희 목사
6/5	주일 IV	내 마음이 낙심되며/외대너 공평하시어(벧전 찬양대 솔로리스트)	하종철 김종구	성령의 사역 (요 16:13-15) 김동욱 목사
6/5	주일 V	예수로 나의 구주되고/의/소르노 구자은(벧전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형수 노영한	성령의 사역 (요 16:13-15) 류병희 목사
6/5	주일찬양	선교 찬양단/만도린 연주대/가브리엘 찬양대	이정준 김규석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 7:24-28) 김익환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특별 예배)	본 당
찬양예배	V 오후 3:00	본 당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장 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장 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107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 말 부	오후 12:15	칼 리 리 움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사 람 부	오전 11:00	복자전 지하1층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예배마루	오전 9:00(학생) 오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새가족양육부	오전 12:15	베 니 디 움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총회헌원이집회	주간교육	교육관 1층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대 학 부	토, 오후 2:30	제2교육관 4층	국내대학진료교	오전 11:00	아 름 림
청 년 1 부	토, 오후 5: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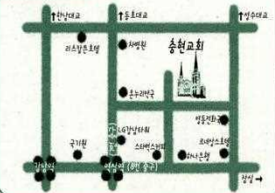
오류 1시에 드리는 주일 IV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5월 충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물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2.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게 하소서.
3.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관계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4.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을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원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점 기 는 분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규철	김은호	노영한	오전근	이병환
2교구	교구위원장	목회사	매월목회	매월목회
윤필성	이 훈	남선우	김영길	김종구
의로성교회	장로	장로	신앙양육	신앙양육
최무길	이창호	차신도	김광남	이종석
재정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안종옥	임두현	이강재	전홍용	전홍렬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동원	황의만
9교구	9교구	9교구	9교구	9교구
김규형	최은희	이재인	김대양	이대식
제2교육관	신앙양육	신앙양육	신앙양육	신앙양육
김태두	박종규	김명옥	조종환	배준식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전도위원
김영달	이성호	최지윤	노영한	박기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정정진	신상수	고재호	강철형	김영은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이달옥	정현환	김승곤	함철주	윤성민
재정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전정현	안석원	김연근	김장국	김종선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이창식	김은철	전희재	김신자	전계식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김형곤	장승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환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송두섭	김인영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준
교구위원장	교구위원장	교구위원장	교구위원장	교구위원장
여국근	안창희	나팔영	정진호	김동욱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김광철	위건광	김익환	장 훈	임현덕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장종신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이경준	이형수	김준희	윤수일	황전섭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정성영	이정훈	김재식	김성훈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윤진주	한영준	김연식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홍순애	이우주	김정자	안태순	김정연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조옥자	강덕원	최은진	전은희	김영순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김경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목회위원
한성일	임태주			
목회위원	목회위원			
■ 찬양감독 김인규 ■ 전담회자 서준성				
■ 전담회자 김소연				
■ 선교 시 송요한				